



자동차 Analyst 신윤철 yoonchul.shin@kiwoom.com

현대오토에버(307950)

P/E 50x 이상에서 맞이하는 첫 어닝 시즌

◎ 4Q25 Preview: 시장 기대치 하향 조정 예상, 차량용 SW 부문 둔화세 반영

- 매출액 1조 2,229억 원(+5.5% YoY, +16.0% QoQ), 영업이익 754억 원(+3.7% YoY, +6.5% QoQ)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매출액: 1.24조 원, 영업이익 803억 원) 하단에 부합할 전망. 4Q25의 글로벌 완성차 출하량 부진, 미국 시장에서의 품목관세 만회 위한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율 축소 현상으로 인해 차량용 SW 부문의 성장 둔화 예상. 이와 같은 차량용 SW 부문 실적 성장성의 제약은 2026년에도 지속될 전망.
- 중저가 트림의 기본 사양에서 순정 내비게이션이 제거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중저가 트림용 내비게이션 패키지 런칭할 계획. 현대오토에버의 현행 차량용 내비게이션 패키지는 가격대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Enterprise IT 부문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한국, 인도 증설 사이클에 힘입어 성장세 유지 기대. 특히 최근 현대차 그룹 내 SI 프로젝트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에 집중되어 있기에 Mix 개선 효과 뚜렷할 전망. RMAC 등 현대차 그룹이 신사업 목적의 신규 시설들을 공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대오토에버 프로젝트 수주 확대 기대.

◎ 현대차그룹 3대 Physical AI 신사업에 모두 기여 기대 반영, 12M Fwd P/E: 57x 도달

- 현대오토에버 3개월 추가수익률 +230% 기록하며 현시점 현대차그룹 그룹사 중 시장 주목도가 가장 높은 종목. ①현대차그룹 2026년 신년회에서 로보틱스 생태계 핵심 그룹사로 지정, ②AVP 본부의 공백이 최근 공식적으로 해소되면서 Motional, 42dot & AVP 본부, 현대오토에버 차량용 SW 부문 간 로보택시 R&D 역할 교통정리 예상, ③향후 Nvidia 블랙웰 GPU 5만장 확보 시 데이터센터 확장 과정에서 현대오토에버 SI 부문의 역할 기대.
- 현대오토에버가 그룹의 3대 Physical AI 신사업에 모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되며 주가는 12M Fwd P/E: 57x까지 단기에 수렴한 상황.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추가 업사이드를 타진하기 위해서는 그룹 내 신사업 수행을 위한 매력적인 M&A 가시화, 고밸류 빅테크와의 신사업 기회 확보 또는 수 년 뒤의 실적 기대치를 선반영할 근거로 3대 신사업 수주 기대감이 숫자로 치환되는 작업 수반될 필요.

Smart Factory Peers, Elite 8: 시가총액 및 12M Fwd P/E 현황

Smart Factory Peers	시가총액 (B USD)	12M Fwd P/E (x)	Elite 8 (M7 + Broadcom)	시가총액 (T USD)	12M Fwd P/E (x)
Siemens	241	22.7	Nvidia	4.45	26.1
Schneider Electric	155	23.3	Google	4.05	28.6
Hitachi	154	32.6	Apple	3.82	30.6
ABB	138	26.1	Microsoft	3.41	27.5
Honeywell	135	20.8	Amazon	2.45	23.3
3M	90	20.3	Broadcom	1.61	33.3
Mitsubishi Electric	67	28.9	Meta	1.55	18.1
현대오토에버	9.2	56.7	Tesla	1.46	220.0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년 1월 14일 종가 및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현대오토에버 12M Fwd P/E 추이



자료: Quantwise, 키움증권 리서치

주: FnGuide 컨센서스 기준 12M Fwd P/E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01월 15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